

창세기

배열

- 창세기의 첫 정규 단락은 2:4에서 시작된다.
  - [창2:4] 하늘과 땅을 창조할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. 주 하나님아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.
- 전체 10개의 단락으로 구성
  - 계보, 족보 라는 표제로 구분된다.
    - (2:4; 5:1; 6:9; 10:1; 11:10, 27; 25:12, 19; 36:1; 37:2)
  - 1장 - 천지창조
  - 2-4장 - 아담과 그의 가족 소개
  - 5:1 아담 가족의 후속 역사에 관하여 말함
    - [창5:1]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. 하나님아 사람을 창조할실 때에,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.
  - 5:29 노아를 소개
    - [창5:29]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. "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,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,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."
  - 6:9은 이어지는 그의 삶을 훨씬 더 충분하게 설명하는 단락을 시작
    - [창6:9]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.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.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.
- 1-11장은
  - 이스라엘 국가와 야곱의 열두 아들이 대표하는 이스라엘 12지파 출현의 배경 역할
- 창세기
  - 기원
    - 이스라엘 백성과 열두 지파의 기원
    - 초기 가나안 정착
- 주요 족장들의 이야기
  - 이스라엘과 주변의 가장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를 보여 줌
    - 에돔(36장)
      - [창36:1]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.
    - 광야 부족 (이스마엘, 25:12-18)
      - [창25:12-18, 새번역] 12 사라의 여종인 이집트 사람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. 13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말하겠다. 다음과 같다.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나바오이다. 그 아래는 게달과 야브엘과 압삼과 14 미스마와 두마와 맛사와 15 하맛과 데마와 여두르와 나비스와 게드마가 있다. 16 이 열들은 이스마엘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면서, 동시에 마울과 부락의 이름이며, 또한 이 사람들이 세운 열두 지파의 통치자들의 이름이기도 하다. 17 이스마엘은 모두 백서른일곱 해를 누린 뒤에,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, 세상을 떠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. 18 그의 자손은 모두 하필라로부터 수르 지방에 이르는 그 일대에 흩어져서 살았다. 수르는 이집트의 동북쪽 경계 부근 앗시리아로 가는 길에 있다. 그들은 모든 형제들과는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.
- 민족 목록 (10장)
  -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알려져 있던 주변 지역 70여 민족 사이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보여 줌

주제

- 이스라엘 기원에 관한 신학적 역사
- 저자는 '이스라엘 출현에 왜 그토록 관심을 가졌을까?'
  - "오경의 주제는 ... **족장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나 '복의 부분적 성취'**" (D.J.A. 클라인스)
    - 12:1-3) 이러한 약속이 맨 처음 주어진 때
      - [창12:1-3] 1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. "너는, 네가 살고 있는 땅과, 네가 난 곳과,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, 내가 보아 주는 땅으로 가거라. 2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, 나에게 복을 주어서,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.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. 3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,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.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."
      - 첫째, 아브라함에게 그가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을 약속
        -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
        - 12:7) 이 땅
          - [창12:7]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. "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." 아브람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.
        - 13:15) 보이는 땅
          - [창13:15]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,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.
        - 17:8)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
          - [창17:8]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, 너와 네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, 나는 그들의 하나님아 될 것이다."
      - 따라서 창세기의 모든 약속 본문은
        - 그 약속의 다양한 측면이
        - 점차 어떻게 발전되어 점점 더 명확해지는지를 알기 위해서
        - 매우 조심스럽게 읽어야 한다
      - (12:1-3, 7; 13:14-17; 15장; 16:10; 17장; 18:10; 21:12-13; 22:16-18; 25:23; 26:2-5, 24; 28:13-15; 35:11-12; 46:3-4)
    - 둘째, 그는 많은 후손을 거느리게 될 것
      -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
    - 셋째,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누리게 될 것
      -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
      - "내가 너와 함께 있어"(26:3; 28:15)
    - 넷째,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다른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
      -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
      - 점진적 발전
  - 창세기의 관심은
    - 자손에 대한 약속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.
  - 1장) "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"
    - 6:7) "내가 창조한 것이지만,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 버리겠다. 사람뿐 아니라,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.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."
    - 대홍수
      - 제2의 아담, 즉 인류의 새로운 조상으로 '노아'가 등장
      - 포도주와 바벨탑으로 온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됨
    - 그러나 생생하게 묘사된 인류의 실패
      -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배경을 이름
      - 한정적 사건에 '우주적 의미'를 부여

자료들

- 창세기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에 대해
  - 매우 다양한 견해
- 견해 1) 모세가 오경 전체의 저자라는 주장
  - 그렇게 보기엔 무리
    - 모세보다 5백년 정도 먼저 산 족장들
    - 창조나 홍수 같은 대륙적 사건
  - 진지한 비평적 논의의 시작
    - J.아스트릭의 <모세가 창세기를 편집할 때 사용했을 수도 있는 자료들>(1753년)
      - 내용 검토
        - 창조와 홍수를 이야기 할 때, 중복 서술을 관찰
        -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'하나님(Elohim)'과 '야웨(Yahweh)'라는 두 가지 호칭 사용에 주목
      - 두 가지 주요 자료로 나눔
        - '하나님'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자료가 원본
        - '야웨'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자료로 보충
      - 이러한 서술은
        - 지금까지도 창세기에 관한 비평적 이론의 기초로 남아 있음
        - 그러나, 모세가 창세기를 편집하였다는 주장은 오늘날에는 '거의 포기'되었음
- 견해 2) 19세기 초
  - 창세기의 발전에 관한 세 가지 주요 모델
    - 첫번째, 단편 가설
      - 일시에 단일 편집자에 의해 사용된, 상대적으로 젊으면서도 독립적인 다양한 자료로부터 창세기가 편집되었다고 주장
    - 두번째, 보충 가설
      - 초기 창세기의 짧은 판본
      - 그것이 계속해서 일련의 편집 과정을 거쳤다고 가정
      - 그때마다 새로운 자료가 추가
      - 그 결과 마침내 창세기의 현재 본문이 완성되었다는 것
    - 세번째, 문서 가설
      - 세 가지 주요 자료로 만들어졌다고 주장
        - 독립적 존재
        - 제각기 관점은 다르면서도 상당 부분 동일한 역사를 포함
      - 자료들
        - 가장 긴 야웨(J) 자료
          - 2장 ~ 50장까지의 자료 포함
        - 그 다음의 엘로힘(E) 자료
          - 15-50장 까지의 자료 포함
        - 가장 짧은 제사장 자료(P)
          - 창세기 전반에 걸쳐 발견되는 자료 포함
      - 편집 과정
        - J가 100년 정도 독립적으로 유통되다가 E와 결합하여 새로운 문본을 이름
        - 이렇게 결합된 JE문서는 200~300년 유통되다가 P와 합쳐져서 지금의 창세기를 이름
        - (이러한 자료들이 오경의 다른 책들까지 계속 이러한 것으로 추정됨)
- 견해 3) 19세기 말
  - 대부분의 학자가 문서 가설이 창세기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한다고 믿게 됨
    - 새로운 대안이 제시된 1970년대 말까지 계속됨
      - 보충 가설
        - J. 벤 시터스, R. 렌토르프, E. 블룸
      - 단편 가설 주장
        - R. N. 화이브레이
    - 이후, 학자들의 의견 일치에 대한 지지가 상이해지기 시작

연대

- 문서 가설이 자료 구분에 대한 학계의 해결책으로 확립되면서, 자료의 연대와 기원에 대해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짐
- J 문서
  - BC 10~9세기, 예루살렘에서 만들어짐
    - 다섯 왕국이나 솔로몬 왕국의 권력과 관심사를 반영
    - 예배가 예루살렘에만 한정되지 않았던 왕정 초기 사회 분위기와 맞았음
- E 문서
  - BC 8세기 경, 북왕국에서 만들어짐
- P 문서
  - BC 500년 직전에 만들어졌다고 추정
    - 안식일 준수와 할례에 관심
    - 종교적 충성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포로가 이후 시대에 잘 들어맞음
- 그러나 렌토르프는, 전통적으로 오경의 각 자료에 부여된 연대가
  - 객관적인 기준보다는
  - 학자들의 합의에 더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
- 문서 가설을 거부하는 이들은
  - 맨 처음의 주요 편집본(J 자료와 대체로 일치)이
    - BC 10세기가 아니라 BC 6세기에 생겨났다는 주장을 선호
  - 주장의 논지
    - 땅에 대한 약속이 포로가 이스라엘과 관련되고
    - 족장들의 이등은 이 시기의 고고학 자료에 잘 들어맞는다는 주장
  - 이 가설에 의하면
    - P자료는
      - 첫 번째 편집본이 만들어진 직후에 창세기에 통합되었을 것
      - 포로기 이후의 종교가 아니라, 성막 시기나 제1성전의 종교를 반영한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음
    - 이처럼 매우 다양한 견해는 얼마나 많은 부분이 역사학자의 해석 작업 속에 투입하는 것들에 의존하는지를 보여 준다. 구체적인 결론이 필요한 명백한 자료는 성서학계에서 보기 드물다.
- R. W. L. 모벌리
  - 몇가지 적절한 의견 제시
    - 오경 전체는 야웨를 향한 배타적인 충성심, 이방 신들의 제거, 거룩함에 대한 요구를 강조하는 모세적인 야웨 종교의 규범성을 전제한다.
    - 그렇지만 창세기는 그러한 규범들을 암암리에 인정하면서도, 족장들이 다양한 성서에 예배하고 가나안 사람과 상당히 평화롭게 지내면서 안식일이나 음식법, 일부 결혼법에 신경 쓰지 않았음으로써, 많은 경우 그러한 규범들을 무시했다고 묘사한다.
- 창세기는 후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화한 옛 자료를 보여주는 증거가 많다.
  - 창세기 14장) 후대 독자를 돕는 무수한 해설을 포함
    - "... 벨라 곧 소알 ... 싯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엠해" (14:2, 3)
      - 단이나 갈대아인의 우르, 블레셋 족속 같은 지명과 민족명
    - "내 집을 다르스리라"(41:40) 같은 직수 설명
    - 시대에 뒤쳐진 사회 관습 강은 것들 등
  - BC 1천년지 보다 2천년기에 더 친숙한 것으로 보이는 창세기 1-11장의 고대 병행 자료들
- 이상의 단서를 종합할 때
  - 창세기는 BC 2천년기에 생겨난 자료들을 편집하여 만들어졌고
  - 왕정 초기(BC 10세기~9세기)에 최종적으로 개정되었다는 결론 지을 수 있다.

저작권

- 작가 넘치는 내러티브들과 탄탄한 구조
  - 단순히 구전 자료에서 진화했거나
  - 순전히 편집자의 편집 작업의 결과일 뿐이라고 믿기 어렵다
- 강력한 창의적 저자의 흔적을 지니고 있지만,
  -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.
    - 모세가 저작자일 수 도 있다
    - (문예 문화의 정점이었던)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름을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작성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.
    - 포로기 이후의 저자가 이스라엘 역사의 첫번째 책을 집필했다고 가정할 수도 있다.
  - 그러나 우리는, 저자가 누구인지 모른다.

창세기 1-11장의 고대 근동 병행 자료들

- 창조와 홍수 이야기
  - 배경
    - 이집트와 우가리트, 그리스의 많은 문헌에 언급
    - 그러나 성경 이야기와 가장 가까이 보이는 설명은 BC 2천년기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됨
  - 수메르 왕 목록 (BC 1900년경)
    - 홍수 이전에 각각 수만 년 동안 다스리던 여덟 혹은 열 왕에 관해 말함
    - 이후 홍수가 땅을 휩쓸었음
    - 그 후로 왕권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음
    - 이후 왕들은 단지 수백 년 동안 메소포타미아를 다스렸을 뿐임
  - 성서 (이러한 유형의 반성형)의 병행자료 : 창세기 5장과 11장
  - 창세기 10장
    - 홍수 이전에 각자 거의 1천 년을 산 열 명의 인물에 대해서 말함
  - 창세기 11장
    - 홍수 이후에 각자 수백 년만 살았을 뿐인 인물에 대해 말함
- 기술과 문명
  - 창세기 4장
    - 가인의 후손이 어떻게 음악, 농업, 도시 건축, 금속 가공 기술을 발전 시켰는지를 말해 줌
    - 이는 일찍이 사람들에게 문명의 기술을 가르쳤던 일곱 '악칼루스(akallus, 천자)'에 관한 바빌로니아와 페니키아 전통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처럼 보임
    - 실제로 이 천자 중에 첫 번째 인물인 아다파(Adapa)는 아담과 이름이 비슷
- 수메르의 홍수 이야기 (아람센의 재구성)
  - 창조부터 홍수까지의 세계 역사를 상세하게 설명
  - 정해진 처소와 관계용 수로, 의복 등을 전혀 갖지 못한 인류의 곤경 (창 2-3장)
    - 닌투르(Nintur) 여신
    - 인류의 유육 생활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계획
    - 실패로 끝남 (창고 창 4:1-15)
  - 왕권 확립은 마침내 첫 성읍들을 건축 (창 4:17-18)과 예배의 도입으로 이어짐
  - 그리고 나서, 홍수 이전에 세상을 다스린 왕들의 목록 (창고, 창 29)
  - 홍수를 촉발한 소음에 관한 묘사, 홍수에 관한 설명 (창 6:1-9; 2장)
  - 이 는 창세기와 수메르 이야기 병행 관계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참고했다고 할 수 없다.
  - 이 둘은 공히 맨 처음 시기에 고대 동방 세계에 널리 퍼져 있던 신념들을 반영한 것으로 봐야 한다.
- 이러한 결론은 창세기를 다른 두 문헌,
  - '아트라하시스 서사시' 및 '길가메시 서사시 제11도판'과 비교할 때 분명히 드러남
  - 길가메시 서사시의 '홍수 이야기'는 '아트라하시스 서사시'에서 비롯되었을 것
    - 군소 신들이 삼급 신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운하와 땅을 파는 모습과 더불어 시작됨
    - 군소 신들이 '파업'을 하여 삼급 신들의 식량을 빼돌림
    - 삼급 신들은 파업을 중단시키기 위해
      - 진홍과 죽은 신의 피로 인간 일곱 쌍을 창조
    - 그러나 지상에서의 인간의 번성은 하늘의 분노함을 방해
    - 이에 신들은 '역병'과 '가뭄'을 보내어 인류를 멸절하려고 함
    - 이 두책략은
      - 역병의 신이나 비의 신에게 제물을 바친 한 인간 때문에 좌절되고 만다.
    - 그러자 모든 신들은 인간을 홍수로 없애 버리는데 동의하게 된다
    - 그러나, 에아(Ea)라는 한 신이 자신을 숭배하는 자(아트라하시스 또는 우트나피슈탐)에게
      - 방주를 지으라는 비밀 정보를 제공
      - 그는 지체없이 친구들과 짐승, 귀중품을 방주로 태운다. (성경의 노아처럼)
    - 아트라하시스는 홍수 수위를 확인하기 위해 새들을 바깥으로 날려 보낸 후 마침내 방주에서 짐들
    - 이어서 그는 회생 제사를 드리고,
      - 홍수 기간에 회생 제사가 중단됨에 따라 굶주림에 시달리던 모든 신이 그 제물 주위로 몰려든다
    - 결국 아트라하시스는 신들에게서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.
    - (그의 다른 이름 우트나피슈탐은 '영명의 발견자'를 뜻함)
- 현대의 독자들
  - 메소포타미아 이야기와 창세기의 유사성으로 충격을 받음
  - 그러나 창세기가 그 첫 독자들에게 준 영향을 우리가 제대로 평가하려면,
    - 그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창세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
    - 창세기를 배경으로 그 이야기들을 읽을 필요가 있다
- 이 문헌들은
  - 고바빌로니아 시대(BC 1900-1600년)에 생겨남, 창세기보다 오래됨
  - 이는 아마도 BC 2천년경에 고대 세계에 널리 퍼져있던, 세계의 기원에 관한 전형적인 신념들을 반영한다
  - 당시에 이 이야기들은 색다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
  - 그러나 창세기 1-11장은 독특한 이야기로 드러난다.
  - 당시의 창세기 첫 독자들은 다른 이야기와의 유사성보다는 차이점에 더 주목했을 것

창세기

- 첫 독자들은
  - 창세기가 오직 한 분인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에 놀랐을 것 (여신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음)
    - 남신과 여신의 성관계 혹은 신들의 자위행위에 의해 일군의 신들이 생겨났다는 '신통 계보학' 같은 것이 있다
    - 이 한 분은 전지전능하시다 (고대 동방의 여타 신들과는 확연히 차별)
    - 그분이 말씀하시면, 빛과 마른 땅과 동식물이 단번에 생겨남
    - 심지어 고대 동방에서 강력한 신들로 여겨지던 해와 달과 별들조차도 그분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음
    -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은 하나님과 달리 지상에서의 일들을 다 알지 못한다.
      - 그들은 항상 통제 불가능하다.
      - 홍수가 일어닥친 후에 그들은 "마치 개들처럼 모퉁이에서 웅크리느" 모습을 보임
      - 홍수가 끝난 후에 삼급 신인 '엔릴'은 우트나피슈탐이 바친 제사로 나아왔는데,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람
- 하나님과 인류와의 관계도 다른 신들과는 다른 독특함을 나타냄
  - 다른 문화권
    - 인류가 물질적 존재(진홍과 토끼)인 동시에 영적 존재(죽은 신의 피로 만들어졌거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)라는 점을 인식했이나 음식법, 일부 결혼법에 신경 쓰지 않았음으로써, 많은 경우 그러한 규범들을 무시했다고 묘사한다.
    - 적어도 왕들만큼은 신의 형상이요, 지상에서 신을 대표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라고 믿었다.
  - 창세기
    - 남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됨
    - 그분을 대표하면서 그분을 대신하여 통치권을 행사한다고 분명히 밝힘
    - 인간 창조는 창조의 정점에 해당
      - 아트라하시스 서사시 : 신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 인간 창조
      - 창세기 : 하나님께 식량을 마련해 주심
      - [창1:29]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"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새 모든 것은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.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."
    - '엄격한 도덕성'도 타 문화권과 차별
      - 홍수의 원인
        - 인간의 소음 : 메소포타미아 전승
        - 인간의 죄 : 창세기
          - [창6:6-7] 6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 하셨다. 7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. "내가 창조한 것이지만,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 버리겠다. 사람뿐 아니라,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.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."
      - 창세기의 앞부분은 줄곧 세계의 기원에 관한 메소포타미아의 신학을 비판한다.
      - 유일신 신앙 - 다신교 신앙과 이에 수반되는 신념들, 신들의 무지함, 허약함, 변덕을 거부한다.